

* 수집된 정보는 대외비로 보호되며 법적 대응 목적으로만 활용됩니다.

국민의 치료 기회를 지켜주세요!

도수치료 관리급여 제도 개선이 필요한 이유

2026년 7월 1일부터 도수치료가 관리급여로 전환되면서, 연 15회 치료 횟수 제한으로 인해 환자의 상태와 회복 속도에 맞는 충분한 치료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지금 환자들이 겪고 있는 현실



일상제한

허리, 어깨, 무릎 등
통증으로 일상생활 제한



시작지연

도수치료 시행 전
기본 물리치료
2주/4회 이상 선행 필요



횟수제한

1년에 15회까지만
건강보험 적용



지속 곤란

회복이 덜 된 상태로
치료 종료

우리는 다음을 요청합니다

1. 환자의 상태와 회복 속도를 고려한 예외 기준 확대
2. 현실적인 관리급여 수가 보장으로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 요청
3. 필요한 치료가 적절한 시기에 시작될 수 있도록 절차 보완
4. 실손보험 혼란 방지를 위해 기존 이용 환자의 혼선 최소화

QR코드로
피해 사례 접수하기



도수치료 관리급여 제도 개선 요청 국민 서명부

국민의 치료 선택권과 적절한 치료 접근성 보장을 요청합니다

본인은 도수치료 관리급여 제도 개선 요청 취지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를 확인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연번	날짜	성명	연락처	거주지역 (시·군·구)	서명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제3자 제공 동의
예시	2026-07-01	홍길동	010-0000-0000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홍길동	√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 연락처는 중복 서명 확인 및 필요 시 사실 확인 용도로만 사용하며, 외부 공개 자료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대한물리치료사협회
Korea Physical Therapy Association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관리급여 관련 환자 피해사예 수집